월요광장

이제는 제발 선치(善治)를 보여다오

박 석 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걱정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건전한 상식과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라를 걱정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걱정'이란,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책을 읽어보면 '백세무선치(百世無善治)'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백세토록(수천 년 동안) 잘하는 정치는 없었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정치를 그토록 바라면서도 '진짜 좋은 정치', '참 잘하는 정치'가 왜 오지 않는가에 대한 탄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윤석열 폭정, 꼼수 정치와 속임수 정치로 우리 국민을 얼마나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만 하게 만들던 정치였던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이 된 후 제왕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착각하여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모두 반국가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였다.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국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법부는 손아귀에 넣은 채 검찰을 앞세운 행정권력만으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강압통치를 일삼아 왔다.

행정권력만으로의 정치가 한계에 이르자 친위쿠데타로 군사통치를 무모하게 시도했지만 깨어있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끝내 독재자를 파면시키며 위대한 민중 승리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야말로 K-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활시키는 위대한 무혈 혁명을 이뤄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지지율이 벌써 65%를 넘었다니 세상이 분명히 바뀌었다. 무도한 검찰독재 국가에서 우리는 얼마나 떨고 괴로워했던가. 민생은 파탄 나고 전쟁의 위기는 고조되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시간이 얼마였던가.

새 정부의 시작단계도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선치(善治)를 한 번 이룩할 계제가 온 것이 아닌가. 다수야당이 집권여당으로 바뀌자 압도적 다수여당의 국회로 바뀌어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이 가능해졌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으니, 이제야말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대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입으로만 떠들고 한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혁신과 개혁을 이제는 성공시킬 때가 되었지 않은가.

잘하는 정치란 별것이 아니다. 공자(孔子)는 이미 말했다. "늙은이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벗들이 신뢰하게 해주고, 젊은이들을 은혜롭게 보살펴준다(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公冶長)"라는 '논어'의 이야기이다.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며,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가 바로 선치에 해당한다.

공자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 시대가 요구하는 몇 가지 정책을 더 가미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에 K-민주주의가 만발하는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부리지 않아 백성들이 믿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끝내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속여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다. 부하들은 모두 지시를 받았다고 굽힘없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절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생떼만 부리고 있으니, 그런 위인이 통치자라고 앉아서 악행을 저지르기만 했으니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아내의 보위에만 총력을 기울이다가 감옥 생활로 인생을 마치게 될 광인을 타산지석으로 여겨, 노인과 백성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수필의 향기

먼 손님처럼 오신 당신

이 중 섭
소설가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삼 년이 되었다. 고향 언덕배기의 추모관인 '세장당(世藏堂)'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좁은 공간에 안치한 유골함은 마음마저 갑갑하게 만든다. 자주 찾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대화의 단절이다. 시골에 어떤 일이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다. 막막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상속받은 밭에 대한 공공용지 보상도 마찬가지였다. 한 필지 소유자의 함자가 문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조그만 유자밭을 상속받았다. 가을 유자 축제로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주차할 장소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상속받은 유자밭이 공공용지에 포함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나야 물론 밭 관리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모든 것이 쉽게 처리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보니 밭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큰 필지 하나와 작은 필지가 셋이었다. 상속 이전처리를 할 때 두 필지는 제대로 했는데 밭 옆 도로에 속한 두 필지는 너무 작고 필요치 않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전이 안 된 두 필지 중 하나는 형제자매의 동의서류를 받으면 해결이 가능한 데 나머지 한 필지가 문제였다. 소유주가 '이○흥'으로 되어 있었다. 직계 조상이 아니었다. 집성촌이라 조상 중의 한 분이 분명한데 누구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나 어머니 생전이면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텐데 이미 돌아가셨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어른에게 물으려니 왠지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사 때 물어보자며 뒤로 밀어놓았다. 그런 상황에서 집성촌 세장당 제례 의식 날이 돌아왔다.

세장당에는 300구에 가까운 신위가 모셔져 있다. 당연히 참석하는 후손들도 많다. 하지만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 의례를 도와주는 제관들을 서로 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에는 축문을 읽는 축관이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급하게 내게 축문을 읽는 일이 맡겨졌다. 축관은 축문에 '현조고 학생 ○○ 부군 신위'라 쓰인 것을 300번 가까이 읽어야 한다. 축관이 혼자 읽을 때 나머지 후손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읽다 보면 자주 목이 막힌다. 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눈들 때문에 속도가 저절로 빨라지다 보면 말이 꼬이기도 한다. 막상 축관을 맡으니 긴장이 되었다. 얼른 축문 첫 장을 살펴보았다. 촘촘히 박힌 축문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움찔거렸다.

제례 의식이 시작되고 내가 독축(讀祝)을 할 차례였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 신위 한 신위 또박또박 읽어 나갔다. 차츰 속도를 더해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신위가 눈에 띄었다. 그렇게 찾았던, 공공용지에 쓰여있던, 문제의 그 함자였다. 순서를 봤을 때 고조부 항렬쯤 되어 보였다. 얼른 페이지를 기억하고 다음 차례를 읽었다. 또 한참 속력을 내어 읽는데 아, 아버지 신위가 떡하니 나왔다. '현조고 학생 상철 부군 신위'. 연이어 어머니의 신위를 읽는데 왠지 울컥, 목이 멨다. 나를 빤히 쳐다보며 생전에 자주 했던 말씀이 들리는 듯했다.

"아들아! 시골에 전화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뭔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읽는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 얼른 머리를 흔들어 몰려드는 자괴심을 떨쳐버렸다. 겨우 축문 읽기를 끝냈다. 옆에 있던 제관이 고생했다며 생수병을 열어 주었다.

제례 의식을 다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집안사람들과 식사하며 술 한 잔 마시며 얘기를 꽃피울 시간이었다. 나는 얼른 외워두었던 축문 페이지를 펼쳤다. 이○흥, 21세 손, 1841년생이었다. 아득한 시간이 머릿속으로 흘러갔다. 시기로 봤을 때 중국 아편전쟁,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던 그즈음이었다. 어릴 때 밭 가에 묵정 묘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도 생각났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의 200년이 지난 시점에 모습을 드러냈을까 궁금했다. 결국 그 필지는 공공용지 보상받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다려야만 한다.

고향에 갔다 올 때마다 기일이면 한 번씩 세장당을 찾자는 생각은 그때만 잠깐 유효하고 만다. 올해 어머니 기일에도 멀리 고향을 향해 머리만 숙이고 말 것이다. 이번에는 혹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그 조상을 잠깐 머릿속에서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 오랜 시간 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기 고

마을에서 시작하는 도시전략

이 민 철
광주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 센터장

오늘날 도시의 미래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 기술이나 자본 이전에 우리는 도시를 구성하는 삶의 뿌리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나는 그것이 바로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은 가장 작은 삶의 단위이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 분야가 건강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력, 건강한 기업과 경제의 순환, 그리고 정치의 민주성이다. 이 세 가지는 추상적인 국가 정책이나 행정의 결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마을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광주는 특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력을 경험한 도시이며 지금도 시민사회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이제 광주는 이 뿌리 깊은 자산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시작하는 세계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는 마을에서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마을에서 경제를 순환시키며, 마을에서 지구를 살리는 도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도시의 전략이며 실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마을 일자리와 마을 기업을 만들고 돌봄과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이고 지속 가능성이다.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제도적 틀을 넘어 실질적인 마을정부를 상상하고 설계해야 한다. 마을정부는 주민이 예산을 결정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마을 살림을 주도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학습이 병행돼야 하며 마을 자치학교, 마을 정책연구소와 같은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자치는 경제와 연결돼야 한다. 마을에서 돌봄, 에너지, 먹거리, 환경, 문화 같은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순환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마을경제 생태계의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광주는 이미 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각 동마다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마을 활동가, 사회적경제 주체들, 다양한 공동체 기반의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남은 것은 이들을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통합하고 제도적 실험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이주민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을 기반의 돌봄과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에너지 자립, 도시농업, 생태 전환 같은 실천이 마을 단위에서 촘촘히 설계되어야 한다. 이처럼 마을은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놀라운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다. 1980년의 계엄 상황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2000년대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의 응원봉 혁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끊임없이 증명해왔다. 이 과정에서 'K-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민주주의 실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풀뿌리 마을자치와 마을정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정부나 거대도시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와 시민의 다양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토대다.

광주는 이 'K-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을 단위에서 재현하고 확산시키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마을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 실험이 곧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이며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광주형 마을정부, 마을자치, 마을경제 모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도시들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다. 마을에서부터 정치와 경제, 사회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세계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세계의 미래는 풀뿌리에서 시작된다.

社 說

'RE100 산단' 특별법 전남 서남권에 발전 기회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첫 대상지로 전남 서남권을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최우선 정책 과제로 특별법을 제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커 이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 점을 RE100 산단 조성 배경으로 설명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찾아가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더구나 그 첫 대상지로 전남 서남권을 지목한 것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남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전기를 보낼 송전망 부족으로 청정 전기 생산을 제약받는 출력제어 조치를 당하곤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추세인 'RE100 정책'에 맞춰 수도권의 전력 다소비 기업을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내려보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도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규제 제로'의 파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기료 인하와 세제 감면은 물론 학교와 병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이미 해남 솔라시도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해놓고 있다. 미국 투자사인 퍼힐스가 15조원을 투자해 3GW 이상의 AI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한 것인데 특별법 제정으로 RE100 산단이 조성되면 투자 실현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RE100 산단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 확실하다. 과제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탈 잦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확대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이 잦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장성에선 최근 태국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이 농촌에 투입된 지 두 달 만에 숙소에서 집단으로 이탈했다. 이들은 농가가 직접 고용해 숙소를 제공한 '농촌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형'과 지역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공공형'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농촌형에서 근로자들의 이탈이 잦아지고 있다.

공공형이 농가 입장에선 비용도 저렴해 이용하면 될 텐데 공공형 근로자는 5개월 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반해 농촌형은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해 자유롭게 작업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가에선 농촌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남도가 지역 농가에 지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9630명 가운데 공공형은 고작 4%인 392명에 불과했다.

농촌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잦은 원인은 인력 공급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를 부담하는 탓에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월인 공공형의 이용 기간을 농촌형처럼 8개월로 늘려주는 것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지 말고 지원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규정도 법으로 정비해야 한다.

無 等 鼓

옹관(甕棺)

선사시대에 시신을 매장하는 옹관(甕棺)은 주로 소아용으로 전세계적으로 사용된 묘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시기 동남해안 지역에서 어린이용 옹관이 발굴됐고 청동기 시대에는 송국리문화권을 중심으로 소아용 옹관이 확산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영산강 유역권을 중심으로 성인용 옹관이 성행하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 마한(馬韓)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일제 강점기 나주 반남고분군에서 시신 매장용 전용 옹관이 처음 발굴됐고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소아용 옹관 53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동안 영산강 유역 성인용 옹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파·보호·상징·복합설 등이 제기됐다. 전파설은 백제 중심지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고 보호설은 현지에서 시신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상징설은 옹관이 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활을 상징한다고 추정하는 견해이고 복합설은 기술·경제·문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원을 찾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발생 배경에서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배적인 학설은 없다.

전남대에서 정년퇴임한 임영진 마한연구원장이 최근 호남고고학보에 게재한 '한국 성인용 옹관의 발생 배경' 논문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눈길을 모은다. 임 원장은 "영산강유역과 맞물린 시기에 중국 발해만, 일본 규슈 서북부, 베트남 중부 등지에서 성인용 옹관이 사용되는데, 이 지역들은 해양교류가 활발한 시기의 주요 거점지역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발해만 일대는 중원과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였고, 일본 규슈 서북 지역 등지는 한국, 중국, 동남아를 잇는 해상 활동의 거점이었다.

임 원장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성인용 옹관이 사용된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결과 선박 제작과 성인용 옹관이 함수관계에 있다"면서 "선박 건조에 따른 목재 부족으로 인해 목관·목곽 대신 옹관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다. 지난 12일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광주·전남의 고대 자산인 옹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이 어지길 기대한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